백두산

23호 - 주체91(2002)년 5월 7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인 위대한 령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발표 11돐

5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발표 11돐을 기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80(1991)년 5월 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시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론설은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론설은 가장 어려웠던 지난 10여년간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풀어 나가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강력한 총대로 담보해 주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의 온갖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기를 열어 나갈수 있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힘차게 싸워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세워 주시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피로써 수호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김일성**민족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영원히 빛내여 나갈것이라고 론설의 필자는 강조하였다.

2002/05/05 조선중앙통신

남북경협추진위 북측대표단 성명 발표

남조선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 배신적 행위,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북과 남은 지난 4월 5일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가지기로 했다.

공동보도문이 채택돼 일시 동결됐던 북남관계가 원상 회복되게 된데 대해 내외가 적극 지지 환영했으며 온겨레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보도문 일정에 따라 우리측은 제4차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금강산 상봉에 이어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제 날짜에 열려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왔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미국에 찾아가 공동보도문의 이행에 역행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대화 재개에 빗장을 꽂는 행위를 저질렀다.

최성홍의 이러한 행위는 북남 사이에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엎고 우리 민족끼리는 대화도, 협력도 할 수 없게 훼방을 놓는 심히 엄중한 도발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미 이 배신적인 행위가 북남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엄중성에 대해 지적하고 남측 당국으로 하여금 진실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자의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4.5공동보도문 이행과 북남대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전반적으로 북남관계를 순조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남측 당국이 도발적인 언동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책임적이며 납득할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없게 하고 있다.

남측 당국은 이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은 이번 제2차 회의가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망언과 그를 묵인하는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는 계속 남측 당국의 책임적인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대표단
2002년 5월 6일 평양

北신문, 최 외교 해임 요구

이북의 노동신문은 6일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의 미국 방문시 발언은 이북을 ≪모해≫한 것이라면서 최장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성홍을 외교통상부장관 자리에 그냥 두고서는 민족 단합과 통일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올 것이 없다≫면서 ≪민족 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온민족이 최성홍을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떼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최성홍이 장관자리에 올라 앉은지 석달도 안돼 미국에 가서 한 망발은 그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의사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면서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우리와 마주 앉아 대화와 협력을 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6 · 15 북남 공동선언이 귀중한가. 사대매국노가 중요한가, 남조선 당국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식 기자
2002/05/06 연합뉴스

2 종합
- 대전형무소 학살 영국 종국기자들 증언
- 금강산상봉 입산료 제기된 바 없다
-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
- 새세대들 군국주의로 떠미는 범죄행위
- 통일연대 자주통일대회, ≪통일운동기간≫ 선언
- 일본과거청산요구 아시아지역토론회 폐막

4 노작
-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6 세기와 더불어
- 7장 5절 백마에 대한 추억 (3)

8 칭송
-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 주석님과 장군님의불멸의 혁명업적

9 조선중앙통신
- 일본 과거청산회피 용납 말아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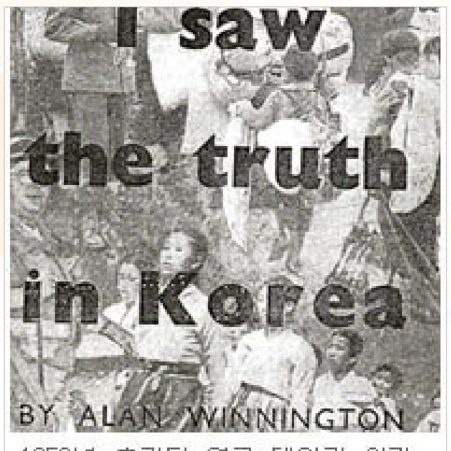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에 관련한 명언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통일의 주체는 우리민족이다
- 한편의 만화를 보며

13 투쟁보도
- 파주 농민들 ≪미군훈련 중단하라≫
- 빼앗긴 땅에 생명의 씨앗을
- 김창현의 ≪민주노동당의 과제는≫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백순환씨
- 노무현의 신민주연합은 3김정치 부활
- 경남 153개 단위노조 대표 정치선언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2)

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 영국 종군기자들 증언



1950년 출간된 영국 데일리 워커의 앨런 워닝턴 기자가 쓴 증언록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의 표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민주당 전갑길의원은 4월 30일 영국 유력기관지인 ≪옵저버≫의 필립 딘기자가 쓴 ≪나는 한국에서 포로였다≫와 일간지 ≪데일리 워커≫의 앨런 위닝턴기자가 쓴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 등 2권의 6.25전쟁당시 형무소학살관련증언록을 공개했습니다.

필립 딘기자는 53년 발간된 증언록에서 50년 7월 23일 충북 영동에서 포로가 됐고 포로생활중 만난 프랑스 카다르신부로부터 대전형무소 집단학살의 진상을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학살현장을 목격한 신부는 미군이 철수하기 직전 군경이 1700여명의 죄수를 트럭에 겹겹이 싣고와 총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장교도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혀 미국이 형무소학살에 관여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딘기자가 평양에서 만났다는 앨런 위닝턴기자는 그의 저서를 통해 대전형무소학살을 상세히 기술했는데 학살직후 대전형무소를 방문한 그는 6개의 구덩이속에 7천여명의 피학살자가 묻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형무소 재소자집단학살때는 여성을 포함한 재소자이외에 민간인학살도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이 학살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학살중의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닝턴기자는 이와 함께 50년 6월 29일에서 7월 3일사이 서울 서대문형무소 지소가 있는 인천에서 1800여명, 수원에서 1200여명이 집단학살됐다고 주장해 대전 이북 형무소에서의 재소자학살가능성도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종군기자들의 증언록에 대해 ≪6.25전쟁의 기원≫을 저술한 미국 시카고대 브랑스 커밍스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대전형무소 피학살자 규모는 2000내지 7000명사이로 상당한 논란거리라고 지적한뒤 전쟁중 도쿄에 있던 영국관리가 위닝턴기자의 글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을 만큼 종군기자들의 글은 신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학살만행이 얼마나 세인을 경악케하는 치떨리는 간악한 살인만행입니까. 인두겁을 쓴 두발 가진 야수, 인간교살자 미제침략군만이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백정질을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만행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중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의 원수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민족은 미제침략자들에게서 피맺힌 원한의 댓가를 천백배로 받아내야 합니다. 당면해서 각계 민중은 미군이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한 6.25전쟁때 감행된 대학살만행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계 민중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굳게 뭉쳐 중단없는 반미투쟁을 벌여나간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고 북침전쟁도발책동도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5일

금강산상봉≪입산료≫ 제기된바가 없었다

남조선의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얼마전에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우리 공화국이 ≪돈벌이에 리용≫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악담을 해댔다.

말하자면 우리측에서 남측 상봉자들로부터 ≪입산료≫라는것을 받는다는것이다.

5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부어먹으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역적패당만이 이따위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금강산상봉에서는 ≪금강산입산료≫니 뭐니 하는것조차 북남사이에 제기된바가 없었고 또 론의된적도 없었다.

≪한나라당≫역적배들이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자체를 그 무슨 ≪돈벌이≫와 결부시킨것은 흩어 진 가족, 친척들과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어떻게 하나 그것을 파탄시켜 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발로이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6.15공동선언리행을 반대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역정당으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금 낵낵이 드러 내놓았다.

우리는 ≪한나라당≫패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내여 우리를 모독한데 대하여 용서치 않을것이며 기어이 사죄를 받아 낼 것이다.

2002/05/05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

5일부 ≪로동신문≫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은 평화와 정의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자주화의 시대적흐름을 거꾸로 돌려 세워 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단죄하였다.

부쉬집단이 집권하자마자 대조선압살정책을 침략적대외군사정책의 주요요소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례 없는 공세작전을 펴고 있다고 하면서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행사를 말살하려는 침략적범죄행위이다.

미제의 강도적론리는 미국식자유체제와 상반되는 그 어떤 정치체제도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나라와 인민은 오직 미국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나라와 인민은 존재할수 없다는것이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은 평화와 정의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자주화의 시대적흐름을 거꾸로 돌려 세워 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힘은 강력하며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이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 올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정책전환을 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2002/05/05 조선중앙통신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길로 떠미는 범죄행위

5일부 ≪로동신문≫은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길로 떠미는 범죄행위≫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력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비쳐 주는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력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태도는 그들이 평화와 안정의 미래가 아니라 침략과 전쟁의 미래를 꿈 꾸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얼마전 일본에서는 력사를 심히 외곡한 중학교용 력사교과서가 국가검정에서 통과되였다.

일본문부과학성이 검정통과시킨 이 력사교과서에서는 력사적으로 고유한 조선의 령토인 독도를 ≪일본령토≫로 외곡날조하였는가 하면 고대일본이 ≪조선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파렴치한 거짓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종군위안부≫범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 날 일본에 의해 뼈 아픈 상처를 입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새로운 범죄행위이다.

(3면에 계속)

통일연대 자주통일대회, ≪통일운동기간≫ 선언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6・15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운동 기간을 선포한다.

6・15공동선언! 그것은 민족 역사의 위대한 전변을 알리는 거대한 함성이였다.

이 함성은 강물이 되고 격류가 되고 큰 바다를 이루어, 이제 그 어떤 외세의 압력도 더 이상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려는 민족공동의 진군의 북소리를 막아낼 수 없는 세상을 열고야 말았다.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노동자, 농민 종교인들의 교류, 2001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민족단합의 소중한 결실들이 이루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핵태세보고서' 등 연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한반도 전쟁책동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일치단결하여 거대한 반미의 대중운동을 열어나갈 수 있는 토대로 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대강령으로, 민족의 이정표로 받아든 우리민족은 이 선언을 파탄시키 그 모든 음모를 짓부수며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공동의 자랑찬 승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민족의 소중한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6・15공동선언을 고수하자는 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3대호소와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5-8월을 ≪6・15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으로 선포한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운동기간≫동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외세의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활동, 조국통일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다양하고도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기본방향으로 잡아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미 부시정권의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음모, 6.15공동선언을 저지파탄시키려는 음모에 맞서 전쟁반대, 미국반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기간동안 사대주의를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전쟁책동에 동조하고 민족 내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수구세력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이념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6.15공동선언 2주년을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첫해로, 민족공동의 축전을 성사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월 15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각종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 선포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오늘,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통일운동의 이정표임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세의 모든 전쟁책동을 분쇄하며 민족의 생존과 단합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계급과 계층, 사상과 정견, 지역과 소속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손잡고 나아가는 민족대단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7천만 전 민족의 공동의 축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남북여성통일행사, 청년학생 통일행사들을 성대하게 준비하며 8.15의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기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마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2년 5월 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폐막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가 상정된 안건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4일 페막되였다.

폐막에 앞서 분과회의들이 있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강요당한 녀성들의 고통≫, ≪일본군이 중국에서 실시한 위안부제도≫, ≪조선녀성들에 대한 일본군성노예제의 특징≫, ≪중국대북 위안부사건의 발전≫, ≪미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실상≫ 등의 제목으로 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일본의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일제가 감행한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강제련행, 강제로동정책은 인도에 대한 전쟁범죄≫, ≪일본의 중국사람에 대한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사실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조선인원자탄피해자문제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된 토론들에 이어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연구보고가 있었다.

일본의 력사외곡, 군국화, 우경화에 관한 분과회의에서는 ≪일본의 력사외곡과 군국화책동≫, ≪일본의 조선사외곡책동에 대하여≫, ≪일본의 군국화책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된 토론들이 있었다.

분과회의들에서 토론자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와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잔인한 학살만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 가며 낱낱이 까밝히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정부가 과거 일제의 만행들에 대하여 진상을 은폐하고 외곡날조할것이 아니라 죄행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피해국들과 피해자들에게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분과회의들에 이어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각 분과회의 의장들이 분과회의진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편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북과 남, 해외단체들의 공동성명이 랑독되였다.

2002/05/05 조선중앙통신

(2면에서 계속)

이에 대하여 지금 우리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해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당국이 외곡된 력사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사실은 일본에서의 력사외곡행위가 우익적인 단체들뿐아니라 정부적인 비호조장과 개입하에 정책으로 강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침략과 략탈의 범죄적과거를 안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력사서술문제는 일개 학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범죄적인 과거에 대한 일본의 립장문제이며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에 비쳐 주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외곡된 력사교과서의 검정통과를 통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적인 야망을 명백히 드러냈다.

과장과 허구를 허용하는 문학과는 달리 력사책, 특히 새 세대들을 교육하는 력사교과서의 경우 허위와 외곡이 절대로 용납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진실만을 담아야 한다.

그것은 력사에 대한 거짓과 외곡이 새 세대들에게 잘못된 력사관과 세계관을 주입하여 그릇된 길로 추동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일본당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주입시킴으로써 새 세대들을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떠밀려 하고 있다. 일본당국의 처사는 결코 력사에 대한 무식이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행위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국화와 해외팽창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합법화되고 ≪유사시관련법안≫의 립법화책동 등 전시체제수립이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쳐 지고 있다. 군국주의정신부활의 한 고리로서 당국자들의 갼야스구니진쟈갼참배가 년례화, 공식화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연장선우에서 일본당국의 외곡된 력사교과서검정통과가 이루어 진것이다.

일본반동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정신무장화, 군국주의의식화책동은 날이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재침에로 지향되고 있다.

이번에 검정통과된 력사교과서의 경우만도 외곡된 내용의 대부분이 조선반도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독도가 ≪일본의 령토≫이며 고대일본이 ≪조선반도남부를 지배하였다≫는 외곡된 력사서술은 일본이 조선을 다시 지배해야 한다는 말 없는 호소이다.

조선을 다시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눈앞의 현실로 박두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미친듯이 벌어 지는 우리의 ≪일본인랍치의혹≫소동, ≪미싸일위협≫소동 등은 조선반도재침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모략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재침책동이 가져 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처신하여야 한다.

20세기 일본의 침략력사는 군국주의가 일본에 가져다줄것이란 재난과 불행, 멸망뿐이라는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

자주, 평화, 친선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것은 일본이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로 된다.

일본반동들이 력사를 외곡하여 후대들을 군국주의길로 이끌면서 침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 가할수록 일본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경계의 눈초리는 더욱 예리해 질것이며 일본의 국제적고립은 촉진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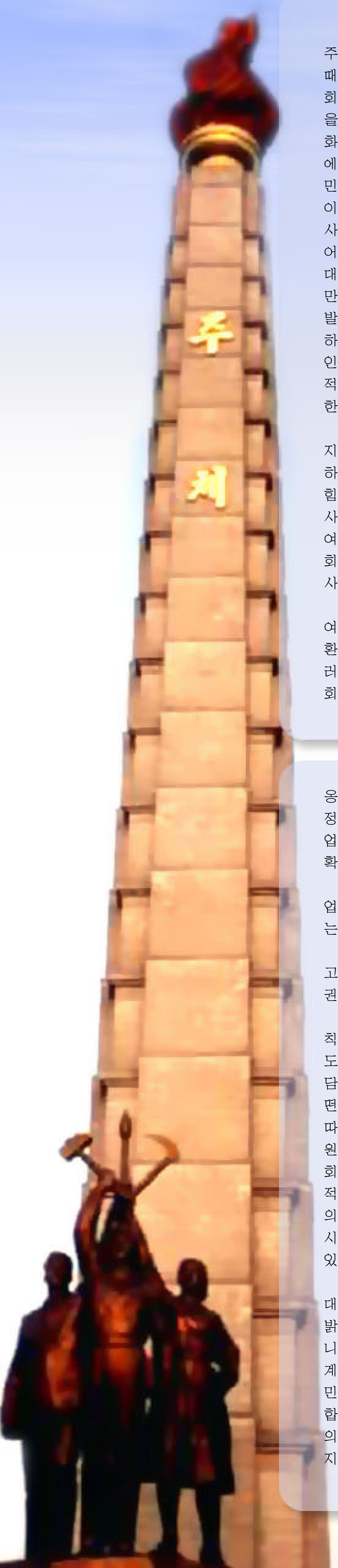
일본당국자들은 범죄적인 과거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시정하고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일본당국이 범죄적인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 사죄하고 아시아나라들과의 평화와 친선을 도모해 나가는것이야말로 일본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할수 있는 옳은 선택으로 될 것이다.

2002/05/05 조선중앙통신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전국 인민정권기관 일군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주체81(1992)년 12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정권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졌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적극 추진되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더욱 원만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인민정권이 강화발전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빛나는 성과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정권기관 일군들의 고귀한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인민정권기관 일군강습회를 계기로 지난 기간 당의 영도 밑에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온 모든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 환경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이것을 기회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안팎의 정세와 우리 앞에 나선 무거운 혁명임무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실 발전의 요구를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새롭게 수정보충하여 주신 사회주의헌법이 발표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사회주의 헌법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자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헌장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정권을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무기로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야 합니다.

1. 인민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적 지휘권이며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인민대중은 정권의 주인이 되어야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거창하고 복잡한 창조적 과정이며 안팎의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인민정권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대표자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입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 길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지도사상은 정권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활동방식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며 지도사상에 의하여 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담보됩니다. 사회주의정권이라고 하여도 어떤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며 정권의 활동원칙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회주의정권이 자기의 노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정치를 실현하자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지도사상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정치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과 입장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역사적 운동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혔으며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을 새롭게 천명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염원을 반영하여 나온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혁명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실증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이 자기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세우고 관리운영하여 나가고 있는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갑니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권이라는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인민정권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갑니다.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입장, 근본방법입니다. 정권활동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지켜야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할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고 독자적인 판단과 주관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경제와 국방도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훌륭히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하고 있는 우리 인민정권 활동의 지도원칙입니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은 혁명운동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며 인민정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목적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행정실무사업과 경제기술사업을 결합시키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일관한 원칙으로 틀어쥐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우리 인민정권의 창건자이시며 정권활동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것은 인민정권활동의 총적 목표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 지반으로 하는 공고한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사회정치적 지반은 정권건설과 활동에 기초를 이룹니다. 사회정치적 지반을 떠난 정권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정권의 존립과 위력은 사회정치적 지반이 어떠한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과 국방력도 정권건설과 활동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정권이라고 하여도 사회정치적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계급적 기초가 튼튼하고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권은 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권은 쇠퇴몰락합니다.

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정권형태와 중요하게 관련됩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운동에 노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근로인민대중이 널리 참가함으로써 혁명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비상히 넓어졌으며 이것은 노동계급의 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을 끊임없이 확대강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사회정치적 지반이 확대된 우리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운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노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에게 있으며 인민정권은 그들에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줍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웠으며 오늘도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탄생한 첫날부터 각계각층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오늘도 전체인민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참된 삶과 후손만대에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으며 인민정권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공고발전하여 온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오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역량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정권은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을 사회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사회계급적 관계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관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웠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지반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복숭아의 속씨, 씨, 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살이 잘 익어야 씨가 튼튼히 보호되고 잘 여무는 것처럼 인민대중이 오직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운명개척의 유일한 자양분으로 삼고 살며 투쟁할 때 당이 강화되고 수령의 영도가 빛나게 실현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지적으로 굳게 뭉쳐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지반의 참다운 면모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영도를 받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정권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은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영도입니다.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사회주의정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이론이 창시되고 시대와 혁명의 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되며 수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정권이 마련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의 정권활동 방향이 제시됩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이끄는 영도자이며 사회주의정권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무기입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떠난 사회주의정권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의 정치는 곧 노동계급의 수령의 정치이며 사회주의정권의 정치와 위력과 생활력은 노동계급의 수령의 정치의 위대성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인민정권 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우리 인민정권의 창건자이시며 정권활동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자주적인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벌어집니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자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고수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 나가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자주적인 정치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 참답게 개척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정권의 진보성을 특징짓는 기본척도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며 정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고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를 하여오시었습니다. 수령님의 민주주의 정치에 의하여 우리 민은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단결의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의 단결은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인민대중은 단결하여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신 첫 시기부터 단결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단결의 정치를 베푸시어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면 너그럽게 포용하십니다. 오늘 수령님의 단결의 정치는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백마에 대한 추억 (3)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친화목재소는 소왕청에서 40-5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목재소의 십장들 가운데서 오백룡이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이 사람이 목재채벌로 유격구를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그와도 낯을 익히게 되었던 모양이다.

오백룡은 5-6명의 대원으로 사료공작조를 뭇고 단숨에 친화목재소를 찾아갔다. 그가 잘 아는 십장은 유격대원들에게 그냥 쌀을 주었다가는 후환이 있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네 목재소를 습격해 달라고 했다.

십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오백룡은 보초를 억류하고 목재소의 관리들과 파수병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들이쳐서 무장해체부터 번개같이 해치운 다음 4-5포대나 되는 귀밀과 콩을 지고 기지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는 오백룡이 보고를 끝내자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그가 말한대로 백마는 이웃마을의 영세농민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내눈을 속이느라고 대피시켰던 장소에서 돌아와 마굿간에 서 있었다.

백마는 콧김을 크게 내불고 나서 감사라도 보내듯 내 쪽을 향해 머리를 몇 번 주억거렸다.

나는 눈굽이 찡 저려났다. 백마의 존재를 몸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분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성미가 백두산곰 같은 저 통장머리 큰 오백룡과 풍기사령이 지휘관의 명령을 제멋대로 어겼으니 이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료가 많이 장만되면 자기 상관이 백마를 이웃마을로 보내기로 한 결심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목재소까지 들이친 오백룡의 저 주관과 뻔뻔스러운 배짱은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가. 저 엄청난 배짱을 싹에서부터 짓눌러버리지 않을 경우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서늘해질 지경이였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소대장 오백룡

이상한 것은 원칙과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이전날처럼 그 원칙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였다. 털빗으로 잔등을 가볍게 긁어주자 눈물이 그렁해서 나를 향해 고개를 주억거리는 백마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째서인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오백룡을 꾸짖고 싶은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오백룡이 소처럼 떡 버티고 서서 생억지를 부리니 나로서는 백마를 기어코 이웃 마을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대장동지, 저를 처벌해도 좋고 강직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백룡이 살아 있는 한 백마를 어데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최후통첩을 하고 나서 큰 전쟁이라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씩하고 콧김을 크게 내불었다.

생각같아서는 오백룡을 붙안고 ≪고맙소!≫, ≪고맙소!≫하면서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 싶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불과 물속에라도 뛰어드는 이 대담무쌍한 소대장의 충직성에 나는 한두 번만 감탄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까막눈이였던 자기에게 조선말 자모를 배워준 사람도 **김일성**이고 처음으로 세상물정을 알게 해준 사람도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도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내가 손때를 묻혀 키운 지휘관이 오늘은 나의 백마를 위해 한 몸을 내대어 목재소를 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사료공작을 나간 것은 엄중한 규율위반 행위였다. 이것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더 큰 탈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에 지휘관은 결심을 잘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오백룡은 김이 몰몰 피어오르는 내 밥상의 국그릇을 내려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국이 다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에게 처벌을 주십시오.≫

나는 불시에 눈굽이 확 달아올랐다. 처벌을 달라고 물러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내 목을 꽉 메게 하였다.

오백룡은 일찍이 소년선봉대시절에 비지깨권총이라는 자작권총을 가지고 온성에 건너가 세관순사를 쏴죽이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온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식솔이 열일곱이나 되는 가정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하여 동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오백룡은 소년선봉대 시절부터 어찌나 유격대원이 되고 싶어했던지 ≪탄피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까지 빚어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하려면 믿음직한 보증인이 있든가, 총 한 자루쯤 노획해서 보증품으로 바치든가, 하다못해 방치수류탄 같은 것이라도 한 개 얻어가지고 가야 한다는 소문을 얻어듣고 방금 총격전이 벌어지던 전장에 가서 나무껍질로 바지가랭이를 동여맨 다음 한 손으로는 허리춤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탄알과 탄피를 주워서 양쪽 바지가랭이에 가득 주워넣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땀을 흘리면서 유격대를 찾아갔다.

바지가랭이를 동여매었던 끝을 풀어놓자 한 말쯤되는 탄피와 탄알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어때요? 이만하면 나도 유격대에 받아주겠지요?≫

오백룡은 우쭐해서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중대장의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유격대원들의 입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보라구 백룡이, 그 탄피는 뭐하러 주워왔나? 그건 총을 쏘고 남은 찌꺼기인데.≫

중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오백룡은 탄피도 적을 쏘아잡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자 탄알과 탄피를 따로따로 골라놓았다. 탄알은 수백 발 되었다.

이 ≪탄피사건≫은 그가 유격대에 입대하는데 유력한 지참품으로 되었다.

오백룡은 입대 후 적들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형제들의 복수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입대초기 마음고생을 몹시 하였다. 총소재를 하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에게 처벌을 준 중대 정치지도원은 적들이 파견한 간첩이였다. 동만특위와 현당의 주요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종파분자들의 신임을 얻어 중대 정치일군의 직위에까지 뛰어오른 그놈은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오백룡이 오발사고를 냈을 때 그놈이 적용한 처벌방법은 혁명군대의 규율이나 도덕의 척도로 볼 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것이였다. 오백룡에게 처벌로 위만군 한 개 중대가 도사리고 있는 모다니에 가서 토성 한복판에 꽂혀있는 만주국 깃발을 떼오라고 명

령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적구에 내려가 모험을 하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명령이였다. 전우들은 모두 오백룡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백룡은 유격대 주둔지에서 100리나 떨어진 모다니에 내려가 만주국 깃발을 떼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정치지도원 감투를 쓴 놈은 그 후에도 오백룡을 해치려고 악착스럽게 기회를 노렸다. 그놈은 대원들이 식사를 할 때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까지 문제시하면서 군대는 국도 먹지 말고 마른반찬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한번은 중대에서 어쩌다가 암소 한 마리를 잡았다. 대원들은 ≪마른 밥, 마른 반찬≫바람에 속에 털이 날 지경이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국에 밥을 말아 실컷 먹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날도 그 알량한 정치지도원이 나타나 먹지 않던 소고기국을 갑자기 먹으면 설사에 걸릴 수 있으니 국을 먹지 말고 마른밥에 마른고기만 먹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대원들은 그처럼 먹고 싶던 소고기국도 먹지 못하였다.

지시를 거역하고 국을 먹은 것은 오백룡과 그밖의 대원 한 사람뿐이었다.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오백룡의 둘째 형수가 그들에게 소고기국을 몰래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백룡은 병실마다에 있는 나뭇가리 뒤에서 그 국을 먹다가 정치지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지도원이 그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울 수 있는 언질을 주었다. 전우들이 보증하지 않았더라면 오백룡은 ≪민생단≫의 누명을 쓴 채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정치지도원은 그 후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오백룡에게 처단되었다.

자기를 사지판에 고의적으로 내몬 처벌조치를 두고 원망하는 오백룡에게 또 하나의 처벌을 준다면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에서의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소대장 동무, 동무가 나의 백마를 위해 적구에까지 갔다온 것은 고마운 일이오. 그렇지만 규율을 위반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할 엄중한 과오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소. 동무들의 심정을 잘 알았으니 백마는 다른 데 보내지 않겠소. 어떻소, 만족하오?≫

내가 이렇게 묻자 오백룡은 벌쭉 웃으면서 ≪네, 만족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이렇게 몇 마디의 지적으로 사건을 간단히 매듭지였다.

백마는 그 후에 나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소왕청방어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에 있은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적들은 리수구 막바지인 황가리골 일대까지 기어들어와 유격구 인민들을 살육했다. 산과 들과 골짜기는 주검으로 덮이고 살림집은 모두 재가 되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빗발치는 탄막을 누비며 매일같이 전투를 지휘하였다. 어제 뾰족산에서 방어전을 조직했다면 오늘은 마반산에 가서 적의 돌격을 좌절시키고 내일은 또 이수구 뒤 고지에서 인민들의 대피를 엄호하는 식으로 동분서주하는 고정에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얼마나 많은 탄우가 쏟아졌던지 나의 외투 안에 댄 털까지 불이 달렸다. 외투에 달린 불은 단번에 나를 휘감아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백마가 바람을 맞받아 달리다나니 불붙는 외투자락이 뒤로만 휘날렸기 때문이다.

내가 외투에 불이 달렸다고 느낀 것은 백마가 바람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 불길을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벌써 외투를 벗어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다가는 바위에 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비호같이 달리던 나의 백마는 움푹하게 패여들어간 눈구덩이앞에서 속력을 늦추며 슬그머니 앞발을 접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말에서 떨어져 눈구덩이속으로 굴러들어갔다.

눈속에 파묻혀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이에 외투를 태우고 군복에까지 달렸던 불은 저절로 꺼졌다.

백마의 두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날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죽음에 못지않은 참담한 화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에도 백마의 뛰어난 감각과 신통력을 두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 몸에 불이 달렸다는 것을 이말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챘을까?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지금도 그 비결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은 설사 생체적 장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놀라운 헌신성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겠는가.

세상에는 충견애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충마애견이라는 말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의 백마는 유격구 인민의 총애를 받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마에 대한 소문은 소왕청 주변의 반유격구들과 적 통치구역의 인민들속에도 널리 스며들어갔다.

오의성도 그 소문을 듣고는 내말을 탐냈다.

≪김사령, 사령의 그 백마를 50필의 군마와 바꾸지 않겠소?≫

내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위해 나자구에 담판을 갔을 때 그는 나에게 이런 흥정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던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튼 나자구에서 담판이 끝난 다음에도 나는 오사령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아 하는 그 백마를 타고 마촌으로 돌아왔다.

나와 함께 근 2년동안 궂은 길 마른 길 가리지 않고 편자를 갈아대며 수천 리 길을 달린 백마는 1934년 소왕청에서 죽었다.

1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전우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백마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의 그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애석해 하는 것을 보고 대원들은 백마를 위해 조총을 울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총이나 울려선 뭘 하겠는가. 백마는 살아있을 때도 총성속에서 소란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죽어서나 안식을 맛보게 총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도 백마의 무덤이 왕청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오백룡이 호위총국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 초에 나는 그와 함께 말을 타고 산책하며 백마에 대한 회고담을 나눈 적이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나 어젯날의 유격대 소대장은 백마와 관련된 세부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의 회고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작가 송영에게도 알려지고 이기영에게도 알려졌다. 한 군관이 그들에게 백마와 관련한 글을 써달라고 청탁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전말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그 불길속에서 일생을 마친 백마는 회상기가 아니라 한 폭의 자그마한 유화가 되어 조선혁명박물관에 나타났다. 백마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이기영과 송영을 통해 화가 정관철에게까지 흘러나간 것 같다. 그 유화는 바로 정관철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었다. 오백룡의 간청을 받고 박물관에 나가니 그런 그림이 턱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화폭에 나와 백마밖에 그려있지 않았다. 그 그림을 보니 백마와 함께 나를 충심으로 받들어온 전령병들과 오백룡의 생각이 나서 그들을 화면에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화가는 내 의향대로 2명의 전령병을 더 내놓아. 작품을 수정완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화이다.

나는 나의 충실한 전령병들과 백마가 그리워질때마다 이따금씩 박물관에 나가보곤 하였다.

80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추억속에서만 종종 그려볼뿐이다. 그 충실한 백마의 모습이오늘도 내 눈앞에서 60년 전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백마가 만일 사람이라면 충신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끝)

송시

또다시 노래하노라 우리의 붉은기 (4)

그렇다
붉은기는 결코 바람에 날리는 기폭자락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이며 진리
사상이며 리념
인간을 인간으로 살게 하는
자주인간의 존엄

하기에 행복과 기쁨
승리와 영광만이 새겨 지지 않았다
뼈 에이는 슬픔과 아픔
가슴 쓰린 희생도 새겨 진 기발
무거운 추도가속에 흐르던 눈물
동지애의 위대한 사랑이 새겨 진 기발

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오늘도 붉은기를 덮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주작봉마루의 붉은 기폭에
오늘도 혁명의 큰 뜻을 새겨 주시는
김정숙어머님
그 뜨거운 숨결이
지금도 이 붉은 기폭에 후더웁거니

력사가 알지 못하는 선군정치로
이 세상 처음
붉은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을 밝히시고
그것으로 혁명철학을 완성하신 그이

붉은기여, 너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
너의 세찬 펄럭임소리는
력사를 안고 높이 고동치는
우리 장군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그 고동소리
20세기에 이어
새 세기에도 눈보라를 헤치며
넘고넘으신 전선길에 높이 울리였다
야전오락회로 흥겹던
조국의 고지와 고지들에 높이 울렸다

높이 울리였다
수도에 새로 일떠선 목장과 공장구내에
멀고먼 국경도시
향기롭고 화려한 제품들이 쏟아 지는 기대곁에
압록강을 넘어 대륙만리
새 세기의 정치사를 펼치시며
끝없이 이어 가시는 세계혁명의 그 길우에

그 길에서
인민의 힘과 신심은 백배해 졌다
고난을 이긴 인민의 눈은
통일강성대국의 래일을 내다보며 더 밝아 졌다

사라지라
낡고 도식적인것은
물러 가라
허례허식과 제자리걸음은

오직 전진만이
오직 비약만이
오직 자력갱생만이
우리의 붉은기와 통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식과 통한다

오, 우리의 붉은기
그것은
어제이며 오늘이며 래일
영원한 영원한 우리의 미래

그때문에
우리 멋으로 붉은기를 들지 않았다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기 위하여
패배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앞에 다진 맹세 변치 않기 위하여

붉은 기폭에 물든 선렬들의 더운 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망국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흠모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태양절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0돌과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0돌에 즈음해 네팔, 이집트, 요르단, 기니, 페루, 콜롬비아에서 9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주체사상연구조직성원들과 각계층 민중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들에서는 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 페루노동자농민학생혁명전선 위원장, 콜롬비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보고와 토론을 했습니다.

연사들은 **김일성**주석님은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치신 인류의 영원한 태양, 20세기의 위대한 수령, 정치원로이시라면서 그분께서 인류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은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영장,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면서 그분의 주위에 일심단결된 조선민중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돌에 즈음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4월 20일 ≪오늘의 조선과 자주성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북유럽협조위원회 공동의장인 스웨덴조선친선협회 토마스위원장과 서기장인 덴마크조선친선협회 안데레스위원장, 그리고 그리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말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이 북과의 친선단체 책임자들과 대표들, 덴마크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민중과의 친선 및 연대성북유럽협조위원회 서기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세기초엽부터 말엽에 이르는 오랜 기간 진두에서 폭풍우를 헤치시며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해 조선민중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로부터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위인으로 다함없는 존경과 추대를 받으셨으며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양의 역사는 오늘 절세위인이시며 조선민중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각하에 의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선민중은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고 흠모하며 그분의 주위에 굳게 단결해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조선식 사회주의를 고수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북 영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가 상영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일본의 과거청산회피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2)

아시아지역토론회에서 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홍선옥위원장의 기조보고

2.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립장

일본은 전세기에 저지른 침략과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면서 끝끝내 과거청산을 회피한채 21세기 두번째 해에 들어 선 세계의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도이췰란드는 전쟁책임을 국가명의로 공식사죄하고 피해국들뿐아니라 개인들까지 보상대상으로 정하여 600억딸라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상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딸리아와 전시 도이췰란드를 추종한 나라들은 물론 중립국, 전승국들까지도 전시범죄에 대한 각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밝히고 청산을 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량심과 리성마저 잃고 피로 얼룩진 과거 침략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당국과 우익반동세력들이 과거의 침략과 전쟁력사를 부정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일본인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류포시키자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력사외곡, 력사부정행위는 일찌기 국가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추진되여 왔고 지난해에 중학교용력사교과서까지 외곡편찬함으로써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인륜적, 반력사적범죄행위로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피비린 과거침략사가 ≪정의의 위업≫으로 정당화되고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수급전범자들이 ≪영웅≫으로 찬미되고 있는가 하면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이 ≪합법적≫이였다고 하는 파쑈적인 궤변까지 튀여 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스쳐 지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2002년부터 도입하기로 공식 승인한 새로운 중학교용력사교과서가 일본의 건국신화로부터 고대 및 중세사는 물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도 완전히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 사관으로 일관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반드시 서술해야 할 력사적사실들을 국수주의사관에 맞추어 고의적으로 빼놓은것이 력사외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된다는데 대해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5천년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50여년전의 력사적사실, 그것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빚어 진 사변들을 이렇듯 파렴치하고 비렬하게 날조, 외곡, 삭제한 나라는 이 행성에 오직 일본뿐입니다.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패전과 침략사, 범죄사에 대한 전면 부정인 동시에 정의와 진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일본의 우익반동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해 나서는것은 또한 언제인가는 그 력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일본의 재침야망은 어제오늘에 움튼것이 아니라 벌써 패전 직후부터 생긴것이고 군국주의가 부활됨에 따라 더욱 불 타 오르고 탐욕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오늘은 그를 실천에 옮기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력사교과서 개악과 ≪야스구니진쟈≫참배를 비롯한 각종 계기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수주의적경향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과 무력증강, ≪주변유사시법≫결정 등 제도적장치까지 마련하여 군사대국화,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이 우리 공화국을 함부로 걸고 들면서 일본인민들속에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최대의 피해자인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은 허황하기 그지 없는 ≪북조선위협설≫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이를 구실로 언제든지 침략전쟁에 진입할수 있도록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마저 개악하려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있은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계기로 ≪테로방지법≫을 일본국회에서 공공연히 통과시킨 이후 미국과 함께 군사연습을 벌리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재침야망을 실천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분별한 령토확장야심은 지어 조선의 독도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끈질긴 ≪령유권≫주장에로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사태는 한마디로 말하여 과거의 태평양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망령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군사적존재를 가진 아시아의 침략원흉으로 등장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국가적보상을 회피하자는데 있는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전범국입니다. 전범국이 피해국에 사죄와 보상을 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책임이고 정치도덕적의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과거의 엄청난 죄과에 대해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죄행을 미화하고 정당화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당국이 전후처리문제해결의 ≪법률적근거≫로 들고 있는 아시아의 일련의 나라와 지역과의 ≪쌍무적협정≫은 유상, 무상의 상표를 부인 몇푼의 ≪원조≫를 미끼로 체결된 극히 불공평한 ≪협정≫들로서 거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반영조차 되여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협정≫들로 과거문제가 청산된것처럼 떠드는것은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우롱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 혐오스러운것은 일본군성노예범죄,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일본의 태도문제입니다.

원래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가 바로 해결되자면 이 범죄사건이 구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해 저질러 진 조건에서 가해자 일본정부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라는 법률당사자관계에서 해결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일반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그것을 ≪위자료≫의 명목밑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법률적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어물쩍 해서 넘겨 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일본군성노예피해자 15명이 미국의 워싱톤련방지방법원에 일본당국의 공식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여 집단소송한데 대해 일본정부가 관할권과 면책특권 등을 구실로 미국정부와 합세하여 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한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2000년에 구일본군의 ≪군인≫, ≪군속≫으로 끌려 갔던 몇몇 재일외국인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위문금지급≫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강제련행범죄의 본질을 가리우고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나 보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이 가장 큰 피해국인 우리 공화국과 우리 나라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반 사실은 일본당국이 취하고 있는 그릇된 태도와 립장으로 보아 그들 스스로가 과거청산의 길로 나온다는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3.일본의 과거청산을 앞당기기 위한 금후의 과업

지난 기간 일본과 아시아피해국 및 피해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보상을 요구하는 각이한 명칭을 띤 수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여 자기 단체의 사명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의 과거청산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왔습니다.

특히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가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연구사와 법률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 있던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일본의 과거범죄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청회와 증언집회, 토론회 등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의 공정한 해결의 절박성을 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국회에서 일본의 진보적세력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과거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보상법률안을 립법화하기 위한 운동은 일본정부가 범죄적과거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기초로 되는것으로서 주목할만한것이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적책임문제가 론의의 대상으로 되여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 졌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등에서 성노예와 강제로동과 같은 인권과 기본적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문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본정부당국에 그들에 대한 조속하고 성근한 사죄보상조치를 취할데 대한 권고가 거듭 제기되여 일본의 과거범죄가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여 왔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련행되여 인간생지옥에서 노예로동과 성노예생활을 강요 당하였거나 일본침략군의 대포밥으로 내몰리웠다가 겨우 살아 남은 피해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우리의 곁을 떠났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이제는 7080살의 고령으로서 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청춘시절에 일제에 의해 강요 당한 야수적인 노예로동과 성노예생활의 후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전에 페인이 되였거나 장기적인 병약자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일제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절대로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기전에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한 과거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시급히 회복하는 측면에서 보나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보나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새 세기를 맞이한 현 시기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아시아피해국과 피해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전후보상실현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련대를 보다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 인사들사이의 이러한 련대투쟁을 보다 폭 넓게 통일적으로 조직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협의기구를 내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면에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
주체91, 5월 5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에 관한 명언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에 관한 명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 과정에 혁명에 관한 수많은 명언을 내놓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에 관한 명언학습은 여러분과 이미 친숙해진 김대용선생과 함께 질의 응답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영도해 나가시는 걸출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과정에 수많은 혁명일화들을 창조하셨고 귀중한 명언들을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과 관련해서 내놓으신 대표적 명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용: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명언들을 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몇 수의 명언들만을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내놓으셨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에서 수령문제가 기본이다.≫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수령의 의지이다.≫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다.≫

≪혁명투쟁은 새형의 인간을 낳고 새로운 생활을 창조한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전진하며 투쟁으로 승리한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은 시련에 시련을 뚫고 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다.≫

≪혁명의 길에서 겪게 되는 고생을 달게 받다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 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변절과 투항은 죽음이며 적들에게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오산이다.≫

≪세대은 바뀌어도 혁명은 멈출 수 없으며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핏줄기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만년 초석이며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보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에 병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전의 순결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당이 병들게 되고 당이 병들게 되면 혁명을 망치게 된다.≫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버리고 혁명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좌절에로 이끄는 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에 관한 귀중한 명언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사회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에 관한 금옥같은 명언들을 잘들었습니다. 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에는 혁명의 주체에 대해 밝힌 명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용: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라는 명언을 내놓으시면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정식화를 내려주시였습니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자면 혁명의 주체가 어떤 사회정치적 집단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의 주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혁명의 주체가 구성에 있어서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 운명 공동체,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네 이제 선생이 혁명의 주체가 구성에 있어서 수령, 당, 대중이라고 했는데 그 구성요소들의 호상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대용: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최고 뇌수입니다. 혁명운동은 인민들의 자주적인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요구를 지녔다고 해도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으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지 못하면 혁명운동을 일으킬 수 없고, 또 설사 일으킨다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으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자면 반드시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당과 인민은 뇌수가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령이 없는 사회정치적 집단은 혁명의 주체로 될 수 없습니다.

당은 혁명의 주체에서 중추를 이룹니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집단에는 여러 정치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중추적인 정치조직은 노동계급의 당입니다. 그것은 수령이 당을 통해서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민대중은 당에 의해서 수령의 사상으로 의식화되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뭉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혁명의 주체에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혁명을 담당 수행해 나가는 혁명의 주인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난 혁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혁명의 주체는 노동계급의 수령과 당과 함께 인민대중으로 이뤄집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혁명의 주체의 본질을 이루는 다른 한 측면 다시 말해서 수령 당 대중이 조직 사상적으로 도덕 의리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운명공동체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대용: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도덕 의리적으로 통일되어져 이뤄집니다. 그 통일은 우선 사상적인 통일이며 조직적인 통일입니다. 혁명의 주체에서 최고뇌수인 수령의 사상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해서 인민대중을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초로 됩니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사상의지적인 답합을 이루게 됩니다. 수령에 의해서 창건된 노동계급의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은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결속시킵니다. 인민대중은 수령에 의해서 창건된 당과 정치조직을 통해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단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 통일은 또한 도덕의리적인 통일입니다. 인민대중이 당의 영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집단에서는 서로 돕고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서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되는 것만큼 수령 당 대중 사이에는 집단주의 생명관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이 도덕 의리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게 됩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에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수령의 의지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왜 혁명이 수령의 뜻이고 수령의 의지인지 이에 대해서 해설해십시요.

김대용: 이미 우리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사상과 의지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기에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혁명과 건설에 올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담보합니다. 혁명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는 올바른 지도사상이 없이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준엄하고 강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갈 수 없고 혁명투쟁에서 우여곡절과 쓰라린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해서 올바른 지도사상이 없이 좌왕우왕하면서 무모한 희생과 실패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과 초기의 공산주의 운동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무궁무진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그것이 분석 일반화되지 않는다면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되고 발전 풍부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수령에 의해서만 인류사회발전에 전 과정에 대한 예리한 분석평가를 내리고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새로운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 혁명발전의 미래가 과학적으로 예견되고 인민대중의 투쟁경험들이 분석 일반화됨으로써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됩니다. 그리고 수령은 혁명이론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는 과정에 이룩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혁명의 지도사상을 심화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점에서부터 수령의 사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수령의 의지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정신력의 집합체로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수령의 의지이다.≫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명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에 ≪혁명전통은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혁명의 핏줄기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혁명전통은 어떻게 마련되며 혁명전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대용: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전통인 혁명전통은 수령이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마련됩니다. 때문에 혁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와 입장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혁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혁명의 배신자들은 예외 없이 혁명전통을 거세 말살하려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일부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좌절에로 이끈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책동도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권위를 헐뜯고 혁명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말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버리고 혁명투쟁을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사회주의는 좌절되고 자본주의는 복귀되는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실을 통해서 역사는 혁명전통을 거부하면 혁명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조국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했는데요. 이건 조국통일의 주인, 조국통일의 주체가 바로 우리 민족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 말려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확인한 거라고 하겠죠.

장장 반세기여에 걸친 민족분열, 국토분단의 수난의 역사는 외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산생된거잖아요. 외세는 지금도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악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덩이를 문 짐승은 고기덩이를 놓으려 하지 않죠. 미국은 한국이라는 맛나는 고기덩이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서 통일을 쟁취해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해내외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 힘차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직접적 담당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일의 주체는 통일실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과 북,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우리 민족입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으로 되는 건 우선 우리 민족자체가 조국통일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나라의 분열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업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새 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며 남과 북사이에 민족적 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자주성이 강한 민족이며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더욱이 현시대는 자주시대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제가 무너지고 압박받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건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입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으로 되는 것은 또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절박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결력과 투쟁력이 강하며 통일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사상에는 민족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통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숭고한 민족애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운동에서 시종일관하게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체라는 철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인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하며 같은 민족으로써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며 민족구성원들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써 대단결하는 원칙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남과 북, 해외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은 소속도 처지도 다르지만 그 누구든 다같이 한겨레이며 통일을 이루어야 할 통일운동의 주인들입니다. 주인들끼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소속과 처지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외면한다면 힘을 키울 수 없고 그러면 통일운동이 그만큼 떠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겨레는 다같이 민족구성원이고 조국통일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소속과 처지에 관계없이 단합해야합니다.

그러면 현시기 우리 민중이 통일의 주체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데서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겁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을 세상에 천명한 민족자주통일선언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통일의 주인이며 그 누구도 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민족자주통일을 근본핵,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나가는데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통일투쟁의 성패는 바로 공동선언을 어떻게 고수하고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 해외의 어디서 살든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해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요인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통일의 주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는 외세와 공조하려는 자들은 예외없이 반통일분자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 함께 사대매국, 반통일역적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연단
주체91, 5월 5일

(9면에서 계속)

국제적인 협의기구가 발족하게 되면 일본의 전후보상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국제적인 규모에서 협의하고 조직할수 있을것이며 매개 나라 및 지역단체들이 서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련대성을 강화하여 일본당국을 과거청산에로 몰아가기 위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는데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을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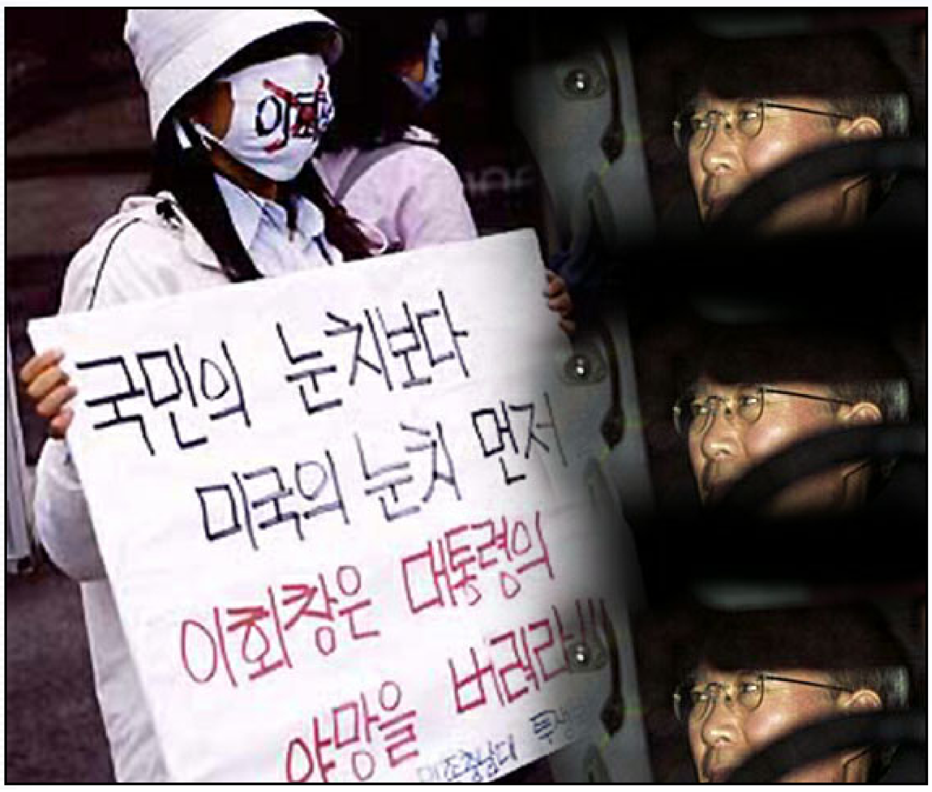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배상과 보상을 하게 하는것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나라와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일본의 과거청산회피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이 정의로운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아시아와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특히 일제에 의한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기대는 자못 큽니다.

나는 모든 대표여러분들이 지혜를 합쳐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공동의 방법과 대책들을 모색함으로써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들의 운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는 뜻 깊은 회합으로 되게 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끝)

한편의 만화를 보며



부시상전의 입김을 얻어 대통령꿈을 실현해보려는 이회창의 비굴한 작태야말로 가련하고 치사하다고 하겠는데요. 항간에서는 그같은 이회창을 가리켜 ≪부시의 꼭두각시≫, ≪부시의 노복≫, ≪21세기 돈키호테 부시와 산초판사 이회창≫ 등, 아무튼 이회창에 대한 야유와 조소,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미운동가 김지호씨의 글 ≪한편의 만화를 보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정씨입니다.

며칠전 나는 신문을 뒤적이다가 한편의 만화앞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만화는 어느 퀴즈시간을 상상한 것이였다.

어떤 신사가 이회창에게 ≪세계 최대 미사일보유국이며 세계 최고 생물화학무기보유국은 어느 나라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때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이회창이 전화기를 들자 먼곳에서 부시가 자기의 전화기를 들고

≪북한이잖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회창은 즉시

≪네, 그렇습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의 정답은 ≪미국≫이라고 밝혀져 있었다.

이것은 북침핵전쟁을 꾀하는 부시와 그의 꼭두각시역을 하는 이회창을 야유조소한 만화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연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다.

대량살상무기문제만해도 그렇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신형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생산하고 있다. 핵무기도 거기에 포함된다. 미국이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1945년에 미국의 수중에 있은 핵무기는 3개였다.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1967년에 미국은 3만 2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양적 지표에서 세계최고였다.

냉전이 종식된후 미국은 핵무기를 축감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핵무기고에는 여전히 핵무기가 가득차 있다. 지난해 5월 부시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2만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부시는 전략핵무기축감의 광고를 걸어놓고 더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미사일에서 해체되는 핵탄두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임의의 시각에 그것을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연유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부시행정부는 새로운 핵무기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시는 얼마전 지하의 목표물들을 파괴할 수 있는 지하침투용 핵탄두를 개발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는가 하면 기존의 핵무기보다 성능이 우월한 소형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부시가 신형핵무기개발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동안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공개한 것을 통해서도 잘알 수 있다. 심지어 부시행정부는 핵무력증강을 제한하는 국제조약들과 규정들을 마구 짓밟으면서 핵무기생산을 위해 핵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생물화학무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생물화학무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생화학전쟁연습을 빈번히 벌여놓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대량살상무기개발생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이야말로 핵무기생산의 총본산이고 최대의 살상무기보유국이다. 그런데 부시가 어떤 나라에도 위협을 준 적이 없는 북을 걸고 들면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날강도이고 호전광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더욱 분격스러운 것은 이런 호전광부시의 꼭두각시가 되어 친미사대매국배족적인 어리광대집단인 이회창의 역겨운 작태이다.

만화에 있는 것처럼 이회창이 부시의 말에 머리를 조아리며 긍정한 것은 실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회창은 부시의 말이라면 흑백을 전도하는 망언도 덮어놓고 지지환영했고 그 집행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 부시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한나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도 이회창이고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면서 전략적 상호주의를 떠드는 부시의 망언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운 것도 이회창이며 세계가 규탄하는 부시의 ≪악의 축≫ 망발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것도 유독 이회창이다.

이회창패당이 조작한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도 부시의 대북침략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집행계획문서이다. 부시에게 멸사봉공하는 이회창이야말로 부시의 둘도 없는 충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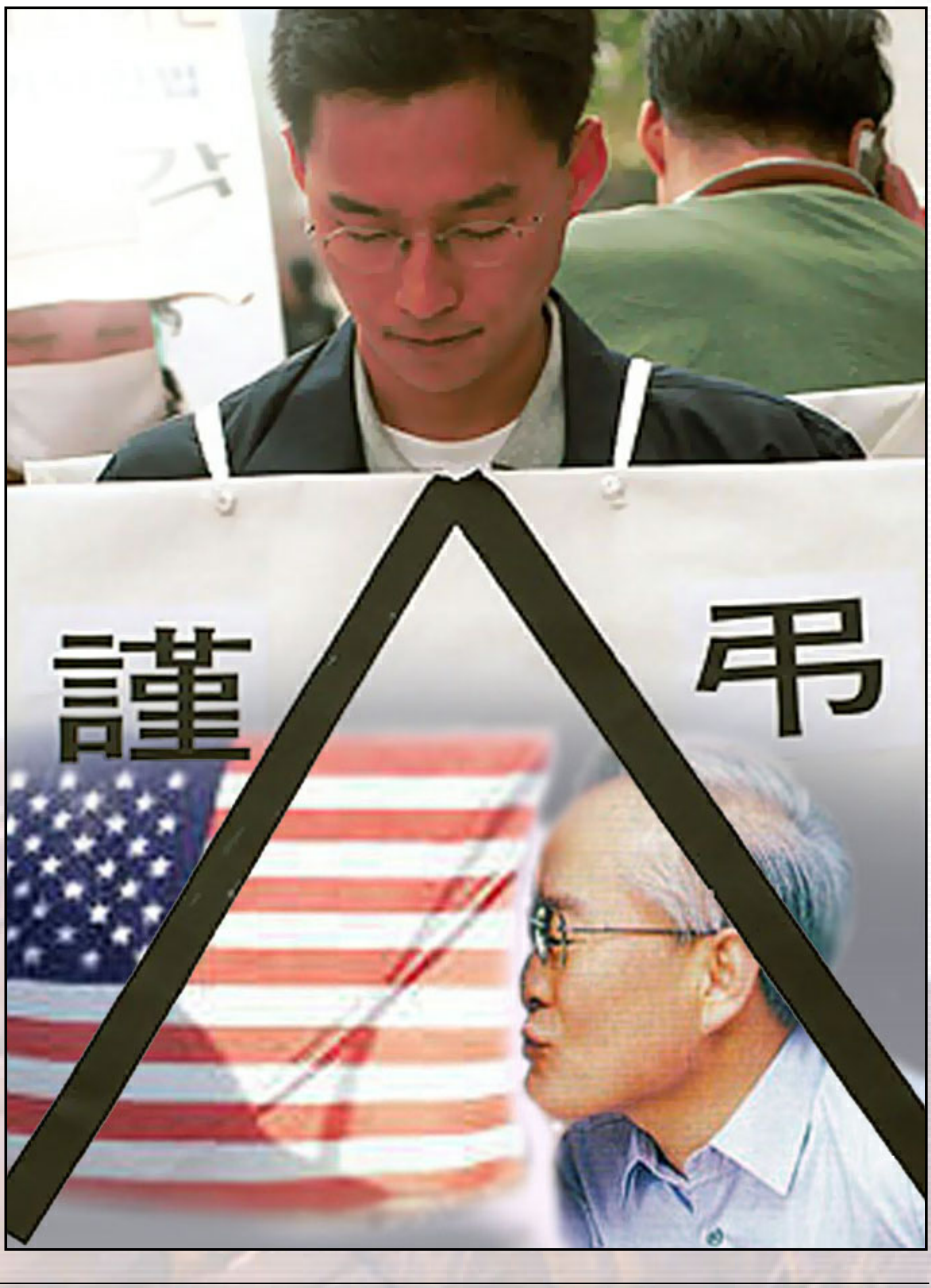
이런 이회창이 부시에게는 사랑받는 충견이라 할 수 있어도 우리 민족에게는 백해무익한 미친개이다. 그러고 보면 만화는 단순히 이회창을 야유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부시에게 동조하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그렇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고 민족을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이회창은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역적이고 민족의 극악한 원수이다. 이런 역적은 하루빨리 제거돼야 한다.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설 결심을 굳게 다졌다.

이회창과 그 패당들은 사대매국과 반통일책동의 죄값을 계산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주체91, 5월 5일



파주 농민들, ≪미군훈련 중단하라≫

≪스토리사격장 토지반환 대책위원회≫ 구성, 성명서 발표

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미 훈련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출입영농인들이 ≪제대로 된 실농 보상≫과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일대의 미 스토리사격장 내 출입 영농인들이 실농비 보상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모든 미군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그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스토리사격장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스토리사격장 토지반환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남근. 이하 대책위)≫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훈련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어떤 문제도 그 책임이 미군과 국방부에 있다≫고 밝혀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군은 농민의 생존권과 삶의 파괴를 무시한 채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스토리와 다그마 훈련장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농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요구가 관계당국에 의해 묵살될 경우 농기계를 정부에 반납하는 등 폐농과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개할 방침임을 밝혀 강경한 대처방안이 섰음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토지보상과 관련, 국방부의 각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실농보상 심의를 하면서 실제 경작자에게 지주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일부 지주들이 보상비의 20~40%를 도장 값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군이 토지수용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 지주를 감싸 안으려는 전략적 의도≫라며 실농보상 심의에 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지주가 아닌 농지위원, 단지 장, 대책위의 확인을 거친 실농인을 국방부가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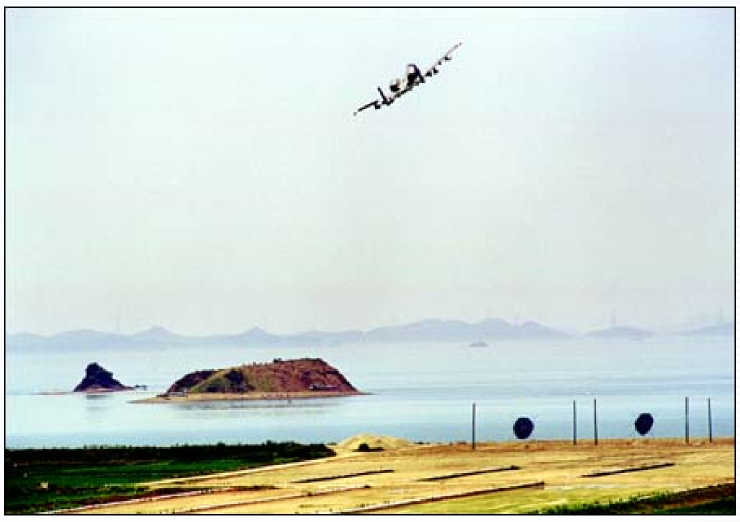
대책위는 또 국방부가 구성한 실농보상심의위원회가 농민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룡부대 참모장을 비롯, 10명의 참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방부 관계자와 대책위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농사를 평생업으로 살아왔다. 실농보상비를 받는다 해도 적은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며 ≪국방부는 적절한 보상과 효용성이 떨어진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준회 기자
2002/05/06 오마이뉴스

≪빼앗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녹색연합, 2002 미군기지 ≪녹색순례≫ 간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빼앗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한 미군기지 녹색순례를 오는 7일부터 14일(7박8일)까지 떠난다.

녹색연합은 이번 녹색순례에 대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지난 시절 억눌려왔던 기지주변 주민들과 주변 환경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곳에 희망과 생명의 씨앗을 심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순례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과 주변 우리 이웃들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 체험이 우리에게 빼앗긴 땅인, 미군기지에 다시금 아이들의 웃음과 연초록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번 미군기지 녹색순례는 첫날인 7일 서울 남산을 출발해, 군산(WOLF PACK 기지 주변)-매향리(남양 방파제, 매향리 쿠니사격장)-평택(평택 K-55기지, 의왕 백운산 기름유출 현장)-파주(캠프하우즈, 캠프에드워드, 캠프스탠튼, 용주골 전동록씨댁 방문, 캠프 자이언트, 캠프 게리오웬)-동두천(걸산동 쇠목마을 캠프호비 캠프케이시 보산동상가)-의정부(의정부 캠프스탠리 캠프 인디언 의정부역)-용산(용산 미8군 기지) 도착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 1998년부터 매해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진행된 녹색순례는 98년 강화 갯벌에서 새만금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동진강, 만경강까지의 도보순례를 시작으로, 99년 송전철탑이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원전지역을, 2000년에는 땅끝 해남에서 새만금 갯벌까지 간척사업 중단지역을, 지난해에는 비무장지대(DMZ) 순례를 진행한 바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5/06 통일뉴스

김창현의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과제는≫

4일 서울산업대 학생회관 앞 잔디밭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일하는 사람들의당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 김창현 지부장이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길거리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1998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 당선되고난지 23일만에 일어난 현대자동차 1만명 해고 사건에서 ≪정리해고는 사형과 마찬가지다. 정리해고가 재고될 때까지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죄 등)으로 징역을 살았다.

그의 아내, 이영순 여사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보궐선거에 출마해 그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정치라면 순수하지 못하고 학생운동은 순수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치가 과연 더러운 것일까요?≫라며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미국과 이북, 이남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며 학생들을 강의 속으로 빨아들였다. 이북의 대미정책에 있어서의 꺾이지 않는 정치와 이남의 정책을 대비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진보정치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케 했다.

또 윤태식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의 사건을 예로 들어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역할도 역설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홍익매점노조를 승인한 이야기와 민주노동당에 있으면서 겪은 삶의 이야기는 웃음과 감동을 자아냈다. 강의가 시작한지 20분여 만에 잔디밭에는 여기저기서 모인 청년학생들로 채워지고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강의였지만, 빨리 끝난 것 아니냐며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질의 · 응답 때, 이을빈(서강대. 99)학생의 ≪만약 집권하였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라는 질문에 ≪쇄국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이고 대등한 입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주한미군을 철거시켜야 된다. 하지만 경제적 간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공조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서창훈(서강대. 99)학생의 ≪대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회창은 안된다. 그럼 누구인가? 노무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라는 질문에 ≪노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지하는데 있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년뒤 대선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후보가 나타난다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길거리 특강을 마친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기세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 정치세력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진보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간이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2002/05/05 유뉴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 백순환 씨 선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5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인 백순환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산별연맹 위원장, 지역본부장,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상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단병호 위원장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된 백순환 씨는 ≪각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운동탄압을 극복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5월말 총력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여건에 맞게 조직해내는 것에 주력하겠다≫라고 향후 활동과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단병호 위원장이 구속되고, 발전노조 파업이후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했던 민주노총의 지도공백사태는 일정정도 정리가 되게 되었으며, 이후에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상반기 투쟁과 관련하여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쟁취,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5월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5월말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
2002/05/06 오마이뉴스

《노무현의 신민주연합은 3김정치 부활》

《인터뷰》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양김 집권 10년》에 대해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민주노동당의 《양김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는 최근 정계개편과 관련,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신민주연합》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양김 집권 10년》에 대해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랜 군부독재를 청산한 김영삼 정권과 5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권은 모두 국민들의 환호속에 등장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양김집권 10년,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다

《오랜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들어선 문민정부인 YS정권에 국민들은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마침내 나라 경제를 거덜낸 정권으로 끝났다. 국민들에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는 동안 그 아들은 비리를 저질러 감옥 가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환호속에 등장한 DJ정권도 YS 정권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예속경제로 만들었다. DJ도 아들 셋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

권 대표는 특히 김대중 정권에 대해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문을 넓히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IMF의 요구사항을 무비판적으로 과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과를 넘어서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권 대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추진하는 《신민주연합》은 청산돼야 할 3김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구정치인들의 야합이자 역(逆)지역주의》라고 비판했다.

신민주연합, 구정치인들의 야합이자 역(逆)지역주의

더 나아가 권 대표는 노 후보가 《청산해야 할 3김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S와 DJ는 집권 이전에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집권 후에는 부패세력이 됐다. 또 과거에 YS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하던 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자마자 YS를 찾아가 부산시장 후보를 천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되니까 연대하고, 표 되니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가차 없이 버리고... 청산해야 할 3김정치를 노 후보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신민주연합의 성격이 뭐냐. 사람들만 모인다고 《민주연합》이냐.》

권 대표는 《지역주의 청산은 영남사람이 호남 가서 표 얻고 호남사람이 영남 가서 표 얻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노무현 후보는 지역주의 청산을 주장하지만 YS와 연대를 모색하면서 역(逆)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울산에서 민노당을 흔들면 안 된다

권 대표는 정가의 최대 화두인 《정계개편》에 대해 한 마디로 《관심없다》고 일축했다. 30여년전부터 되풀이해온 보수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는 것.

권 대표는 특히 《노무현씨는 울산에서 민주노동당을 흔들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 후보는 《대선후보가 되면 6.13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반드시 한 곳을 승리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이는 울산의 송철호 변호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송 변호사가 민노당 후보로 확정돼 민주당 입당이 물 건너가자 민주당이 민노당과 송 변호사를 연합공천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송철호 변호사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연합공천 하겠다는 얘기가 떠돈 다음부터 지지율이 정체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 민주당

이 우리 표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민주당 독자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떠도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울산에서 민노당을 흔들었으며 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성역이 아니다

그러나 권 대표는 《노무현 바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노풍은 IMF 이후 위축되고 억눌려온 20-40대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폭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 《노풍으로 지금 당장 민노당의 입지가 위축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바람이 진보정당을 대안세력으로 만들고 노동자 농민들이 스스로 진보정당을 찾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권 대표는 《민노당이 노무현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노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진보적인 관점에 입각해 노 후보의 정치철학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이라는 얘기다. 그는 《노무현이 성역이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노 후보를 무조건 옹호하려는 시각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이회창씨와 노무현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르지만 노무현씨와 권영길은 더 많이 다르다.》

권 대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냉전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부분적으로 개혁적인 정치인이지만 노동자를 억압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언론은 민노당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노당으로 쏠리지 않았나. 이에 대해 권영길 대표는 《현 시점에서 제도언론이 민노당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하나도 알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겠는가. 제도언론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도적 배제와 무의식적 배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배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인터뷰나 기획 취재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건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대통령 아들들 문제로 부정부패가 최대의 이슈인데 부패청산의 상징적 인물인 이문옥 전 감사관이 민노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도 제도 언론은 한 군데도 보도를 안 했다.》

결론적으로 권 대표는 《진정한 정치개혁은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언론의 무의식적 · 의식적 배제를 극복하고 진보정당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연결된 과제다.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주의가 청산될 것인가. 아직 요원하다고 본다. 민노당과 같은 진보정당, 정책 중심의 정당이 제1야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될 때라야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약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권 대표는 민노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 진보진영에 다른 후보가 있으면 예비경선을 통해 범진보진영 단일후보를 만들 계획이다.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내걸 최우선 공약은 《신자유주의 반대》다.

전홍기혜 기자
2002/05/06 프레시안

경남지역 153개 단위노조 대표 정치선언

경남지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153개 단위노조 대표가 6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에서 《지역주의.보수정치 타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경남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정치선언》을 선포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정치선언문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및 대선 등 권력재편기를 통해 1천300만 노동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보수수구 패거리정치를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총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위해 대표자들은 ▲단위노조 전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지방선거 출마하는 노동자후보 등의 당선을 위해 인적.물적 총력지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쟁취 등을 위해 노력키로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5년전 대통령의 아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가더니 현 대통령도 똑같이 감옥에 갈 아들들의 문제로 결국 탈당했다》며 《대통령의 탈당만으로는 부정.부패정치는 청산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길 기자
2002/05/06 연합뉴스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2)

서론

▶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기지와 ≪신식민지≫
민족해방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논제 2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3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논제 4 -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논제 5 -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수정

논제 6 -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논제 7 -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 지향

논제 8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논제 9 -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논제 1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2)

민족해방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에서 조선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그리하여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5년(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당중앙위원회사업 총결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전체성으로 보아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단계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장기적이고 간고하고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하신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그러나 지금 북조선과 남조선은 서로 다른 정세에 놓여있으며 남북조선에서 혁명은 그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혁명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기에 있어서는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서로 다른 혁명과업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당면한 혁명과업이지만 남조선에서는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당면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먼저 자신의 이전논문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역혁명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통일시켜 수행하는 혁명이라고 시정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에서 현 시기 조선혁명을 두 개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과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개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은 남측의 지역혁명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북측의 지역혁명인 사회주의혁명으로,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은 민족해방혁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은 두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를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그러나 필자는 그 동안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 그러한 구분이 이론적 착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혁명기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혁명(지역적 범위의 혁명)이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역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고 있는 혁명으로 보아야 합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열 가지 논제≫는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조선혁명의 ≪혁명≫이라는 개념과 ≪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 그리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전제에서 ≪지역혁명론≫을 비판하며 ≪남조선혁명≫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에서의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밖에 없습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따라서 민족해방혁명은 신식민지와 혁명기지를 포괄하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 됩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따라서 민주주의혁명은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입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는 혁명입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이처럼 혁명의 주체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민주주의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하나의 통일적 혁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논하는 데서 ≪지역혁명론≫은 무의미하게 됩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지역혁명론≫에서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될 수 없게 됩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기지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남조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조선혁명이라는 개념은 남조선이라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지역혁명(남조선 지역혁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혁명기지의 반제혁명역량이 신식민지인 남조선을 해방하는 혁명(남조선 해방혁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참고로 한호석소장은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2001 10, 이하 ≪전략적 과업)에서 ≪민족해방≫과 ≪민족자주≫의 개념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족해방은 이전 시기의 식민지적 예속이나 오늘날의 신식민지적 예속을 가릴 것 없이 제국주의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모든 형태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집단의 변혁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하여 민족자주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모든 종류의 반제자주화운동을 규정하는 폭넓은 전략개념이다. 민족자주는 민족해방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된다. 그러므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한 뒤에도 제국주의세력이 이 지구 위에 남아있는 한,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은 계속하여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남는다.≫(1.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이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이 두 단계로 수행되는 것과 달리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수행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 전략적 과업이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의 수행과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1.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첫째, 조선혁명이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혁명≫개념은 협의와 광의의 두 개념이 있다. ≪열 가지 논제≫는 ≪혁명≫개념을 협의, 곧 체제변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조선혁명이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혁명≫개념을 광의, 곧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투쟁으로 볼 때에는 북반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건설도 내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조선혁명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모두 포괄하는 혁명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열 가지 논제≫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견해를 입증하는 것이 촛점이므로 ≪혁명≫을 시종일관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덧붙여 ≪혁명≫개념을 광의로 볼 때에는 세계혁명도 내포하므로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부분으로서의 측면도 내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측면도 ≪열 가지 논제≫의 주된 관심사 밖에 있다.

둘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본질은 민족해방혁명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인 민족해방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인 민주주의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혁명이지만 본질에서 민족해방혁명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지만 본질에서 식민지사회인 것과 같다.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두 혁명의 위상은 같지 않다. 민족해방혁명은 민주주의혁명을 규정하며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혁명이다. ≪열 가지 논제≫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본질이 민족해방혁명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경우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세째, ≪민족해방≫이자 ≪민족자주≫이다. ≪민족해방≫과 ≪민족자주≫의 개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개념은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다. 물론 위 인용문의 한호석소장처럼 구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족자주≫개념은 ≪민족해방≫개념을 내포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호석소장은 두 개념을 구별해 사용하며 최성원동지의 ≪현 시기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2001 11, 이하 ≪이론문제≫)의 ≪지역혁명론≫과도, ≪열 가지 논제≫의 ≪혁명기지론≫과도 구별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호석소장의 견해가 특히 ≪지역혁명론≫과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호석소장은 ≪하나의 전국혁명인 ≪민족해방혁명≫이 두 개의 지역혁명인 ≪사회주의건설(3대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규정하고 선도한다≫는 견해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업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업을 규정하며 그 발전과정을 선도한다≫는 견해인 것이다. 한호석소장은 ≪민족해방≫과 ≪민족자주≫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민족자주위업(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업)≫이 ≪사회주의건설위업≫을 규정하고 선도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없다. 더욱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남측≪지역혁명≫으로 규정한 적도 없다. 물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혁명≫이라는 견해도 밝힌 적이 없다. 최성원동지의 ≪열 가지 논제≫가 나온 이상 한호석소장도 ≪지역혁명론≫, ≪혁명기지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등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하고 정리된 견해를 밝히리라 예상된다.

네째,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서 하나의 혁명이다. 조선혁명은 혁명을 체제변혁의 관점으로 볼 때,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민주주의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하나의 혁명이다. 3대혁명은 체제변혁이라는 의미의 혁명이 아니므로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혁명을 광의로 본다면 3대혁명은 북측지역에서 수행되는 독자적인 지역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선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통일시킨 하나의 혁명과 다른 하나의 지역혁명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3대혁명인 것이다.

다섯째, 민주주의혁명은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다. 엄격히 말해 조선혁명에서 지역혁명은 북측지역에서 수행되는 3대혁명뿐이다. 민주주의혁명은 지역혁명이 아니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다. 여기서 지역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은 독자성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열 가지 논제≫는 한편에서는 지역혁명을 지역적 범위의 혁명으로 설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3대혁명은 북측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지역혁명이지만 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인 민족해방혁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만 수행되는 지역적 범위의 혁명인 것이다. 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혁명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혁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혁명은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혁명과 다른 하나의 지역혁명이 결합된 혁명이다. ≪열 가지 논제≫에서는 조선혁명을 논하는 데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지역혁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지역혁명론≫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 뿐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이 전국적 범위의 혁명이고 민주주의혁명도 3대혁명과 같은 지역혁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지역혁명론≫은 맞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선혁명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며 남조선혁명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조선혁명은 ≪혁명≫개념을 체제변혁으로 볼 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의 지역혁명이 아니라 ≪북남의 반제혁명역량≫이 남조선을 해방하는 혁명으로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것이다. ≪지역혁명론≫을 배제한다면 남조선혁명은 조선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과 혁명기지의 출판보도물에 나오는 조선혁명과 남조선혁명이라는 개념을 전체와 부분으로 대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혁명을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의 부분으로 대치시킬 경우 이는 본래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의미가 ≪남조선지역혁명≫이라는 의미로 변질되게 된다. 노작과 출판보도물을 연구할 때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열 가지 논제≫에서는 ≪혁명기지의 반제자주역량≫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북남의 반제혁명역량≫ 또는 ≪혁명기지와 식민지의 반제혁명역량≫이라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으로 된다. 남조선을 해방하는 역량은 혁명기지만이 아니라 식민지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남조선혁명의 최고영도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조선혁명은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조선혁명의 최고영도자이시다. 조선혁명이자 곧 남조선혁명이며 조선혁명과 마찬가지로 남조선혁명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해방혁명이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일환이다. 혁명기지와 식민지의 반제혁명역량이 하나가 되어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의 최고영도자가 위대한 장군님이신 것처럼 남조선혁명의 최고영도자도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신 것이다.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통일여명 제17호

주체91(2002)년 5월

불멸회고 – 조국광복회
불후노작 –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결성에 대하여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천출명장 –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통일구성 – 선군정치에 조국통일이 있다
예술거장 – 선군음악의 새 시대를 개척
정론수필 – 우리 수령님 / 백두산혁명강군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주요문헌 –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백두청년 –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해체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보도집을 발간하며 / 향후 모든 선전자료에서 한국을 <한국>으로 표현할 데 대하여 / 최성원동지에게 보내는 피지피공개키 / 〈백두산〉 창간! / 메이데이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을 총화함!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 <통일혁명이론연구1>에 대하여 / <통일혁명이론연구2>에 대하여 / <통일혁명이론연구3>에 대하여 / <6.15주간>을 정간합니다
이론실천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